



# 육계업의 변화와 대응자세



이상정  
경남지부 육계분과 위원장

## 1. 육계업의 변화

농가가 부업형태에서 전업형태로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과란만장한 과정을 거쳐 오늘에 도달 하였지만 그동안의 어려움은 앞으로 닥쳐올 수입 개방화 시대에 비교하면 오히려 온실 속이었다고 할수 있을것 같다.

금년1월부터 미절단 냉장육의 수입 개방에 이어 년도별 축산물 수입 개방방침에 따라 1997년 1월부터 완전수입이 개방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우리 육계 농가들은 보다 현실성 있고 구체적으로 대응 방안을 찾아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동안 타산업의 수입 개방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개방화 물결은 결코 쉬운 문제만은 아니다. 되돌아 보면 자동차 생활회사가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냉장고, 텔레비전, 과자등을 생산하는 회사가 오히려 그들 제품의 수입에 열중하여 상당한 이윤을 본것으로 알고 있다.

유추하여 계육의 수입이 개방된 마당에 과연 국내의 유통업체나 외식업체, 대기업 등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는 불을 보듯 너무나 뻔하다.

## 2. 육계인의 대응 자세

### 1) 생산원가를 절감해야 한다.

생산원가를 절감하려면 우선 사료부문에 부가 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아야 되겠고 수입사료 원료의 관세인하 국산 옥수수, 보리 등 사료 생산 원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겠으며 병아리의 년중 가격이 너무 높고 또한 가격의 진폭이 크므로 이에 대한 방안으로 생산자 중심의 계열화 업체나 각지역 양계 협동조합에 종계장 및 부화장을 적정규모로 갖추도록 지원하여 시장 조절 기능의 역할을 맡도록하고 육계 생산농가에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 자동화를 통하여 사육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 2) 육계 농가의 단합

지역 단위의 모임이든지 대한 양계협회를 통해서 듣지간에 모임에 참석(사료생산, 병아리생산, 질병발생, 유통현황, 가축약, 축산기자재 등)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결론을 얻어 실천하여야 하며 수직이든 수평이든 생산자 중심의 계열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 3) 지역 육계업 협동조합의 설립활성화

축협 중앙회의 업종별 산하조합으로 각 지역에 육계업 협동조합이 많이 생겨 보다 적극적으로 계육의 생산 병아리생산 사료의 유통부분, 계육의 가공과 유통부분 등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특성에 알맞게 개선하고 참여하여 단단한 기초를 다져야 한다.

왜냐하면 육계는 산란계와 달리 일사분란



한 조직체제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생산농가가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이 결성되어야 주인 의식을 가지고 계열화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아울러 축협도 육계 계열화 사업에 관심을 보다 더 가질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앞에 열거한 여러가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우선 지역의 모임을 결성하여 지금까지는 생산에만 전념하였지만 앞으로 내가 생산한 계육이 어떤 유통경로를 거쳐 최종 소비자의 손에 얼마의 가격에 들어가는지는 알고 유통과정을 줄일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우리나라와 인접한 나라의 육계생산 원가가 얼마이며 이것잉 국내에 수입이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결국은 내사육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등을 지역의 사육자들이 모여 협의하고 좀더 나아가 유통업자와도 같이 협동하여 지역 시장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면 수입이 개방되더라도 어려움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계